

- 본문 : 창세기 15장 7~21절
- 제목 : “하나님의 호의로 가득한 약속”

설교자 : 조경래 담임목사

#### · 본문 읽기

-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
- 8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
-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
-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찢개고 그 찢개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찢개지 아니 하였으며
- 11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
-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
-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
-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
-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
-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
- 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찢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
-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
- 19 곧 갠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
- 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
-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

#### · 마음의 문을 열며

전쟁에서 공수부대는 전략적 요지를 점령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러나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낙하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절대 뛰어내릴 수 없다는 임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. 이 신뢰를 바탕으로 적진에 낙하함으로 난전으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인간의 시각적 한계는 눈 앞에 펼쳐진 것이 전부이지만 더 멀리, 더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할 때 새로운 시대, 새로운 차원으로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됩니다. 오늘 “무조건적인 언약”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한 걸음으로 “일방적인 축복”의 차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.

1. 우리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히 신뢰할 만한 싸인입니다.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나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을만한 확실한 싸인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.

#### · 말씀의 씨를 뿌리며

2.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아브람은 분명히 믿습니다. 그렇다면 아브람의 믿음은 '사실 여부'를 믿는 것 이상의 어떤 신뢰의 모양을 갖고 있었습니까? (창15:4)
3.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에서 약속하는 풍습을 따라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아주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 (창15:12, 17)
4.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서 누가 우리의 증표가 되어주셨습니까? 그리고 이를 깨달았던 사도바울의 선언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? (엡1:13~14, 롬8:35~39)

#### · 삶의 열매를 거두며

5. 이미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시고, 목숨을 내어주시고, 보증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면 충분함을 깨달을 때 “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”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!

